

# 광주문화사업·박람회 예산 꼭 챙기겠다

## 국회 예산 전쟁 시작... 지역 예결위원들의 전략

18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예산 국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의원이 민주당에서 4명, 한나라당에서 1명 등 5명이나 돼 어느 때보다 광주·전남 예산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4년 연속 예결위원이 된 이정현 의원이 마지막에 예산조정작업을 하는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강기정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한나라당의 예산 날치기로 번번이 누락된 광주·전남 예산을 이번에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광주일보에는 17일 5명의 국회 예결위원으로부터 예산국회에 임하는 자세와 전략을 들었다.

### 예총회관 건립 관철할 것



◇이정현 의원 =예결위 특히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양보한 만큼 약삭같이 지역예산을 챙길 것이다.

는 경쟁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 일자리·복지분야 다시 조정



◇강기정 의원 =경제적 위기임에도 일자리에선 이 충분하지 않고 복지예산 증액도 올 수준에 머무르는 등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안이한 예산이다. 따라서 위기에선 다시 조정하고 특히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반값등록금과 비정규직 예산을 조정할 것이다. 지역 예산의 경우 3년 연속 여당의 일방처리로 부족하게 반영됐으나 이번에는 그것을 감안해 지역예산과 균형발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

### 남비에산 사각 지역예산으로



◇주승용 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에서 어찌 보면 소홀할 수도 있지만 가장 열심히 활동해야 할 예산국회다.

이명박 정부의 남비에산 예산을 삭감해서 대신 복지예산과 지역예산으로 돌리도록 할 것이다. 특히 오는 2014년 완공할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도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신경을 집중할 것이다. 나아가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업 대책 예산을 반드시 챙길 것이다.

### 서민생활 지원 최대한 확보



◇장병완 의원 =예산전문가로서 민주당의 전체 예산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지역 예산에 대한 기대

가 큰 만큼 그동안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 지역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침체 대비 서민생활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건립, 연구개발 특구 육성, 클린디젤부품산업 등 광주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문화산업과 R&D(연구개발) 관련 예산 증액에 매진할 것이다.

### SOC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게



◇김경록 의원 =그동안 한나라당의 예산 날치기 때문에 못 챙긴 지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F1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예산을 최대한 늘리고 지켜낼 것이며 광주~완도고속도로 등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때문에 뒤처진 지역 SOC(사회간접시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국비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특히 FTA에 따른 농수산업 대책이 거의 없는데 이 대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7일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지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남구청에 요구했다. 사진은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현장.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시 주요사업·구청 인허가 잇단 감사 왜?

# 잘못된 행정 고통감수 바로잡기

### 이마트·의료폐기물 허가 취소·CCTV사업 의혹 조사

광주시 자체사업은 물론 5개 구청의 인허가를 비롯한 지역 주요 사업들에 대해 광주시의 감사와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일선 구청의 인허가에 불법 소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허가 취소 결정까지 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17일 남구청의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해당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관련 허가를 취소하라고 남구청에 통보했다. 광주시가 이처럼 감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 조재운 광주시 감사관은 "감사는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감사방향이냐 진행상황 등을 철저히 보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번 감사는 사실과 다른 루머가 확산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즉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감사를 한다 ▲감사결과가 나

왔는데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확산하면서 주민의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우선 확정된 사실만이라도 신속히 발표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광주시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북구 매곡동 이마트 허가를 취소할 것을 남구청에 통보했다. 광주시는 해당 이마트 건축물은 용도지역과 맞지 않고, 견제율과 용적률을 초과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최근엔 CCTV 회선 사업자 선정 및 통합 관제센터 구축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축허가 취소요구가 통보된 남구에는 비상이 걸렸다. 남구

###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부터 취소까지

일자	주체	내용
2009.8	업체	양과동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
2009.11	남구	건축허가 승인
2011.7	주민	광주시에 특별감사 요구 및 취소
2011.9	광주시	국토부로부터 건축허가 부적절 확인
2011.10	광주시	남구에 건축허가 취소 요구

는 일단 광주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건축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문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시설에 10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남구에 대한 업체 측의 행정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최근 신청사 이전 추진 등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결과에 따라 재정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당초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도 예정돼 있어 조직 내·외부 요인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홍행기 기자 redplane@

## 언어 불통·교통 불편·정보 부족 등 3대 장애 해소

# 외국인 관광서비스 국제표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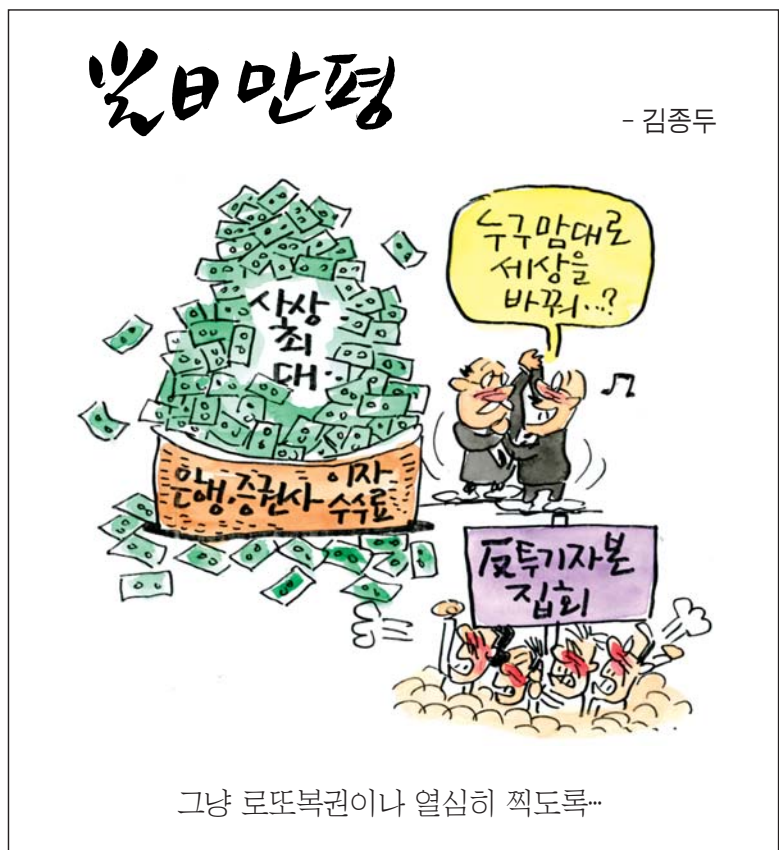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언어 불통과 교통불편, 정보부족이 3대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관광서비스의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발전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환경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광주에 해외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교통, 정보 부문의 3대 불편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선 각종 표지와 사용설명서, 대화집 등에 한·중·일·영어 등 4개 언어를 함께 표기하고 사용어휘는 인터넷과 안내표지,

지도 등에서 동일하게 통일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과 각종 안내표지, 음식점, 쇼핑센터 등 관광정보와 안내분야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림문자 및 사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분야의 경우 외국인의 주요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교통정보를 온라인과 홍보물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특히 추천코스는 철도와 지하철 노선 그리고 시티투어버스 코스를 기준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관광패스제도를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홍행기 기자 redplane@



**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F1 경주장을 찾아주시는 관람객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11 F1코리아그랑프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두 번째 개최된 F1대회는 한국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F1코리아그랑프리 국내외에 주목을 받게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민들께서 어렵지만 일단 시작한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 각계의 성원, 그리고 후원기업의 참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극심한 교통정체도 경찰의 전폭적인 수고로 크게 개선되었고 숙박·편의시설 문제 등도 크게 줄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며 도공직자들의 능력과 헌신, 도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가장 낙후된 전남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대회를 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F1대회를 계기로 도민들의 공감속에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인 모터스포츠 산업을 우리 지역이 선점해 낙후에서 탈피하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포기하거나 도전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없겠지만, 결코 성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전남은 남이 하지 않은 일에 도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국내에서는 생소하고 낯선 F1대회를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못 사는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도전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 F1코리아그랑프리 개최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직·간접적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 10. 17

**박준영**  
F1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지사

녹색의 성장엔진  
Korea's Green Growth

The F1 FORMULA 1 Logo, F1, FORMULA 1, 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 KOREAN GRAND PRIX and related marks are trade marks of Formula One Licensing BV, a Formula One group company. All rights reserved.